

메세 프랑크푸르트 홍콩 주최

인터텍스타일 상하이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에 기대 걸어

메세 프랑크푸르트 홍콩(Messe Frankfurt 香港) 등이 주최하는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어패럴 패브릭스 2009(2009年 中國 國際 Apparel Textile 部資材 秋冬 博覽會)가 2009년 10월에 상하이 푸둥 신구(浦東 新區)의 상하이 신 국제 박람 센터(新 國際 博覽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첫날은 초대객(招待客)만을 위한 스페셜 바이어즈 데이(Special Buyer's Day)였다. 세계 동시 불황으로부터 제일 먼저 회복 중인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世界 最大 規模)의 텍스타일 전시회가 성공할지는 앞으로의 섬유 산업 동향의 지표로도 될 수 있다.

메세 프랑크푸르트 홍콩에 의하면, 2008년 가을에 개최된 지난번 전시회에 이어, 이번에도 이 센터의 10개 전시관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총 전시 면적도 11만 5천 m²였으며, 21개국 지역(21個國 地域)으로부터 2400명을 넘는 출품자가 참가하였다.

2008년 9월 15일에 발생한 리먼 브라더즈 파탄(Lehman Brothers 破綻)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개최된 지난번 전시회의 경우, 31개국 지역으로부터 2,559명의 출품자가 참가하였으며 관람자 수는 85개국 지역으로부터 49,896명이었다. 2007년과 비교하면 출품자 수는 25% 증가하였으며, 관람자 수는 2007년의 98개국 지역, 54,148명과 비교하면 8% 줄었다.

저번 전시회 후로 세계 동시 불황은 한층 더 심해져, 선진국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므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섬유 수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정 요소나 불투명감을 품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경제 회복이 크게 눈에 띄었으며, 세계를 리드하는 위치에 있다. 중국 정부는 2009년의 실질적인 중국 국내 총생산(總生産 : GDP :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 목표를 8% 내외로 보고 있는

데, 2009년 10월 1일 발표한 국제 통화 기금(國際 通貨 基金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경제 성장 예측(經濟 成長 豫測)은 2009년 7월에 이어 다시 1포인트 위로 수정하여 8.5%로 끌어 올렸다. 중국 국제 통계국이 발표한 GDP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前年 同期 對比 成長率)은 제 1사분기 6.1%에서 제 2사분기에는 7.9%로 올랐고, 상반기로는 7.1%가 되었다. 제 3사분기와 1 ~ 9월의 성장률은 2009년 10월 22일에 발표 예정이며, 한층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 따라, 중국 섬유 산업의 설비 투자도 1 ~ 8월에 2008년 동기와 비교하여 6.6% 증가로 회복하고 있다. 봉제는 12.7% 증가하였고, 화섬 제조는 17.9% 증가하는 등 2자리수 %로 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 위기로 받은 타격과 회복에의 기대가 겹치는 전시회가 되었다.

일본의 출품자는 모두 53개사 단체인데, 그 중의 3개사는 단독으로 출품하였다. 50개사 단체는 메사고 메세 프랑크푸르트가 조직하는 일본 파빌리온(日本 pavilion) ‘크리에이티브 저팬(Creative Japan)’에 참가하였다. 처음으로 출품한 구라보는 메이드 바이 구라보(made by Kurabo)의 차별화 소재를 제안하여, 중국 국내 판매와 중국으로부터 구미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파빌리온에는 “JFW-JC(Japan Fashion Week-Japan Creation)인 상하이의 출품 구획(出品 區劃)이 설치되어, 가이하라 등 9개사가 참가하였다. 프로모션(promotion)에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의 출품도 그런 목적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출품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일본계 중국 법인도 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내외로 어필하고 있다.♣